

# 홍남기, “추경, 5월 내 처리해 달라”

### 국회 찾아 여야 4당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를 찾아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5월 처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먼저 예방했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한 뒤 “전체적으로 국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보장을 위한 민생 추경이지만,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등 지원 대책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5월에 꼭 심의·확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추경을 ‘예산 퍼붓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듯 “정부가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재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각적으로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5월 국회 통과와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추경이 5월에 확정되지 않고 6월로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5월 말에 예정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5월에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추경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굉장히 절박하다”며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닥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원내대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찾아오셨을까 미루어 짐작이 된다”며 “(추경안 처리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추경은 작기에 결정되고 집행돼야 효용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경기하방 리스크가 밀려오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 야당 원내대표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윤소하 정의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5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과 재해 추경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재해는 시급하고, 민생은 나중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5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 다른 당에서 5월에 시급히 심의하겠다고 같은 의견을 주셨다”며 “중요한 건 한국당이지만 심의에 돌입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여서 그것이 하나의 변수”라며 “또 다른 위원들이 심의를 이어가게 되면 복잡할 수 있어서 속도를 내서 29일 전에 마무리됐으면 한다. 계속 국회를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전북농협,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9일 순창군 금과면 방성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김장근 본부장, 박병철 NH전북농협노조위원장, 장경민 순창군지부장 등 전북영업본부 및 순창군지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복숭아 적과작업과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방문한 농가는 “적과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라 많은 일손을 필요로 했다”며, “적시에 나와 도와주니 정말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봉사활동은 일사 100일을 맞은 신규 직원이 함께 참여해 농업인을 위한 농업 분야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신규직원 박어진 계장은 “농협인으로서는 농심(農心)과 농업·농촌의 중요



성에 대해 느끼고 실천하는 계기로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영농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촌·농가에 이번 일손돕기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공모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마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시상규모가 지난해 24개소·5억원에서 금년도에는 35개소·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공모대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오는 10월 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상자를 게재하고 11월 농협중앙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공모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창출에 기여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마련했다”며,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농촌마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조성 ‘한마음’

### LX-한국수자원공사-KT 3자간 MOU 체결... 기술·데이터 공유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LX)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KT와 손잡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최초 계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한다.

LX는 8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LX 최창학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KT 이동면 사장 등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LX-한국수자원공사-K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스마트시티의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시건설 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X는 위치기반 공간정보와 가시화에 관한 정보를, 한국수자

원공사는 도시 물 순환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보를, KT는 IoT, ICT기반 빅데이터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최창학 사장은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이다”며, “LX는 공간정보기술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해 8월부터 공간정보기술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영태 기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지난 8일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제23회 '2019 JB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8일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제23회 '2019 JB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좌는 군산중앙여고 1, 2학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아, 넌 누구냐’, ‘박상미의 고민사건-나를 믿어 야 꿈을 이룬다’ 등의 저자이자 현재 경찰대학 교양과정 교수이며, ‘더공감 마음학교’ 박상미 대표를 초청하여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대표는 교통과 역경 속에서 스

## 지금의 고통은 미래 희망의 스펙!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군산중앙여고서 인문학 강좌 개최

스스로 믿고 꿈을 이룬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풀어 놓으며 그들의 공통점은 ‘믿어주는 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조언을 구했다’며, ‘열등감은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자신의 꿈을 꺾지 말라’ 지금의 고통이 미래 희망의 스펙이 된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어른이 손을 잡아 줄때 그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며, 강연 후 학생들의 고민과 소통의 시간을 비롯, 사인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최수정 선생님은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강사를 전북은행 인문학 강좌를 통해 모시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전북은행 50주년을 축하 하고 도내 청소년이 더 넓고 다양한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 2017년도부터 JB 인문학강좌 ‘청소년들의 소통과 공감’이 되는 대표적 인문학활동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교 6,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